



‘평양강사향연도’ 제6폭 ‘대동선유’ 작가 미상.

조선 문화예술계 최고 스타 평양 기생들의 삶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녹파잡기’
한재락 지음·안대회 옮김

“소첩이 기생 명부에 들어가 떠도는 것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천성이 뜻을 굽히거나 남에게 지지 못합니다. 기생들 틈바구니에서 부대끼며 살기는 해도 남들이 문에 기대어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고 기가 꺾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황금 한 바구니와 진주 한 말을 들고 날마다 찾아와서 저를 유혹해도 어찌 제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본문 중에서)



‘기생’이라는 단어는 불온하다. 냉대와 편협이 이면에 깔려 있다. 사전적 의미의 기생은 ‘전통사회에서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등으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여자’를 일컫는다. 때론 기녀(妓女)로 불리거나, 말을 할 줄 아는 꽃이라는 뜻에서 ‘해어화’(解語花)로도 불렸다.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기생으로 황진이를 빼놓을 수 없다. 시조와 한시가 능했던 그녀는 박연폭포, 서경덕 등과 함께 ‘송도3절’로 불릴 만큼 미모와 재능이 뛰어났다. 그녀와 서경덕과의 일화는 시대를 넘어 다양한 스토리의 소재로 차용될 만큼 유명하다.

시·서·화·춤과 노래 등 담겨
영희·죽향·진홍 등 66명 인터뷰
19세기 지방문화도 엿볼 수 있어

부안 명기 이매창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류 문인이었다. 매창은 당대를 풍미했던 허균 등과 교분을 나눌 정도로 시와 서화에 능했다. 종종 때는 선비들이 그녀의 시비를 세우줄 정도였다. 기생은 조선 문화예술계의 최고의 스타였다. 오늘날로 치면 아이돌 스타 못지 않은, 아니 뛰어넘는 팔방미인이었다. 당대의 풍속과 문화를 이끌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예술인들이었다. 조선시대 유일한 기생 인터뷰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개성 출신 한량 한재락이 1820년대 평양의 기생 66명을 인터뷰한 ‘녹파잡기’에는 평양 기생들의 삶이 담겨 있다.

책은 지난 2006년 안대회 성군관대 교수가 처음 소개해 조명을 받았다. 이번에 조선 후기 시·서·화의 삼절로 꼽히는 신위(1769~1845)의 비평을 덧붙여 안대회 교수의 번역으로 출간됐다. 한재락은 개성 갑부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과 예술이 뛰어났지만 개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문화와 풍류로 풀었는데 그런 연유로 기생들을 접할 수 있었다. ‘녹파잡기’에는 평양 기생들을 만나 시·서·화와 춤과 노래, 연주를 감상할 기록이 담겨 있다. 한재락은 문인들과 문예 교류가 가능한 학식을 겸비하거나 예술에 조

예가 깊은 기생을 최고로 꼽았다. 영희나 죽향, 진홍, 재봉, 명에 등이 이에 속한다. 저자의 영희에 대한 인물평은 “따듯하고 고아하며 총명하고 민활하다. 사람됨은 국화처럼 담박하고, 재주는 비단처럼 뛰어나다. 노래와 춤을 잘하면서도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는 듯이 다소곳하다.” 반면 “색정으로 도발하거나 고객의 금전을 노리는 속물적 기생은”은 품제(가치나 우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재락은 “천박하지 않은 품성과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기생, 자부심을 갖고 고결한 정신을 소유한 기생 위주”로 선택했다. 봉해와 영주선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나섬과 같은 기생은 “뜻이 도도하여 자중자중했다”며 “천박한 사내라면 아무리 화대를 백 꿩이나 즐지라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재락은 기예가 출중한 기생들도 대거 소개했다. 노래와 연기, 춤, 바둑 등 기예 면에서 출중한 실력을 지닌 여인을 주목했다. 그 예로 경쾌라는 기생을 소개하며 “노래를 잘 불러 새끼 꼬리까지 재잘대는 듯했다”고 평했다. 이처럼 책을 통해 조선시대 기생과 지방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19세기 조선 문화예술계의 정수를 밝히는 사료로 부족함이 없다. 무엇보다 조선 최고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내밀한 가치를 지닌다. <휴머니스트·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구라치 준 지음·김은숙 옮김 ‘지나가는 녹색 바람’

일본 본격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으로 자리잡은 구라치 준이 일상 미스터리로 다룬 소설을 펴냈다. ‘지나가는 녹색 바람’은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풍경에서 의표를 찌르는 진상을 밝혀내는 작품이다. 구라치 준은 ‘50엔 동전 스무 개의 수수께끼’로 ‘외키타케 나미시’를 수상하며 처음 이름을 알린 작가다. 이후 ‘할아버지 속의 천국’으로 제1회 본격 미스터리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15편의 단행본을 발표하며 ‘미스터리계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소설은 대저택 안에서 일어난 의문투성이의 연속 살인을 다룬다. 과연 평범한 일상 속 가면을 쓴 살인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부동산업으로 크게 성공한 호조 가문의 수장 효마는 고생만 하다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다 아내의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영매를 집에 들인다.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큰딸 부부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초상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두 명의 젊은 심리 연구원을 초대한다. 독립해 살던 효마의 손자 세이치도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10년 만에 본가를 찾는다.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일상과 광기를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상징하지 않는다. 등장 인물을 통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인도 주저하지 않는 광기를 빈 범죄자가 다르지 않음을 소설적 장치로 구현해낸다. <김은숙·1만5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수경 ‘낙타연애’

사랑은 여기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 부재할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랑에 대한 기억은 누구에게나 가혹하면서도 쓸쓸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보는 사랑은 그렇게 어둡거나 아프지만은 않다. “대기리를 잘라도 끈질기게도 꿈틀대는 것지렁이연인들”처럼 기억은 고통스러우나 “당신 얼굴을 덮고 있는 책장이 손가락이 베이는 건 여전히 달콤한...” 시인이자 단국대 교수인 임수경이 시집 ‘낙타연애’를 펴냈다. 제목부터 이색적인 시집은 사랑하는 이의 부재의 고통과 그와의 달콤한 사이를 오가는 지난한 시간의 기록이다. 한마디로 ‘낙타연애’는 가혹한 부재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사랑이 시작된 “섬 한 귀퉁이에서 출발해 결국 다시 돌아”(‘야,행성’)를 수밖에 없는 무한회귀의 시간이며, 대답은 없고 질문만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부재의 현실은 가혹하지만 함께 했던 기억은 매혹적이다. 화자는 기억을 매개로 이렇게 노래한다. “목을 젖혀 등에 귀를 대면/ 입술을 축이며 오물거리던 기억들이 사각거려/ 온몸을 간지럽히지” “당신의 사막, 가운데 있는 샘, 우리의 기억/ 그래서 고마워”(‘낙타연애’). 김수복 시인은 추천사에서 “임수경의 시들은 부재와의 달콤한 연애에 빠져 황홀하다. 당신이라는, 신의 꿈속이라는 부재의 현실을 내면적으로 대응하는 몸짓이 처절하면서도, 기억의 비밀들이 환하게 환기되는 시의 품성이 매혹적이다”며 “그 아름다운 비밀들은 수련거리거나 은밀하며, 주문처럼 그 그림자가 겪는 침묵으로 각인된다”고 평했다. <문학출판·1만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석주 ‘베이비부머를 위한 변명’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빠르면 60세를 넘겼거나 육박한 나이다. 직장에 다닌다면 임금 피크제 대상이거나 퇴직을 앞둔 상태로 인생의 2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전생의 참혹함을 겪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흑흑함’ 속에 살아온 세대다. 중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입학시험 등 입시에 시달리다 1960~1970년대 산업화의 시기를 거치며 1980년대 민주화와 IMF 외환 위기, 대통령 탄핵 등 격동의 한국사를 온몸으로 겪어왔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변명’은 베이비부머로 태어난 시인 장석주가 동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온 혹은 버텨온 ‘동지’들에게 보내는 ‘치유’ 메시지다. 장석주 작가 개인의 슬프고 찬란한 생존의 기억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살아남은’ 다섯 번의 입을 벌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을 이야기한다. 동시대를 산 세대를 위한 사적 고백이자 그 세대의 삶과 의식에서 고집어낸 사회적 의미론 쯤 된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 책은 저자 개인의 이야기인 ‘베이비부머를 위한 변명’과 동시대를 함께 겪은 벗들의 에세이인 ‘베이비부머의 고백’으로 이뤄졌다. 저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지금까지 살아남은은 닐 암스트롱이 지구인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 디뎠던 것만큼 ‘위대한 도약’이라고 논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 각종 암과 파킨슨병을 다 피하고 개발 독재와 민주화를 거쳐 신자유주의 시대까지 승자 독식 사회의 경쟁과 자살의 유혹을 견뎌내고 살아남았으니 자랑스럽다고 동 세대에겐 전한다. <연두·1만4000원> /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